

“세월호 책임자 처벌하라”...13명 실명 공개

유가족·시민단체 재수사 촉구

박근혜·김기춘·황교안...

1차 명단 발표...기관 5곳도

전담 수사팀 신설 등도 요구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우병우, 이주영, 황교안...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 책임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유족·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1차 명단에는 참사 당시 정부 관계자 13

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상 청와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상 정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상 해경), 김병철 육군 기무사령부 310 부대장, 소강원 610부대장(이상 기무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4·16연대 등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여론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검찰 수사 방해 등으로 진상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의 경우엔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황교안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조사를 방해

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 세월호 책임자를 수사·처벌할 수 있는 전담 수사팀 설치를 요구하고, ‘국

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훈(故 장준형군 부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제대로 알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35번째 공판이 참사 당일인 1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3월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운선 전 정부수석 등이 피고다. 이들은 현재까지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유치원생들의 세월호 추모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용산공원에서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 170여명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내용이 적힌 노란우산을 든 채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0 해질 19:05 달뜨기 15:27 달집 04:08

하늘도 우울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져 남해안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6/24	보성	구름많음	1/20
목포	구름많음	7/21	순천	구름많음	6/22
여수	구름많음	10/19	영광	구름많음	3/22
나주	구름많음	1/23	진도	구름많음	4/19
완도	구름많음	7/20	전주	구름많음	5/23
구례	구름많음	1/23	군산	구름많음	5/21
강진	구름많음	3/22	남원	구름많음	2/24
해남	구름많음	2/21	축산도	구름많음	9/17
장성	구름많음	1/23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남동~남	0.5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1.0~1.5	남동~남	1.0~1.5

◇ 생활지수

- 뇌출중: 보통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좋음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37	11:48
여수	17:24	--:--
	00:23	06:55
	13:06	19:20

◇ 주간 날씨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	☀	☀	☀	☁	☁	☀
12/21	11/23	11/22	11/23	12/21	13/21	11/22

장휘국교육감 “유치원 소송 위축되지 말라”

간부회의, 엄정대응 방침 밝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5일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 후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감사했는데,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위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들이) 법적 보호를 기대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를 위축

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해나가기를 바란다. 대응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30개 유치원을 감사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진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이에 올해 들어서 감사를 받은 유치원 5곳이 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올 광주인권상 필리핀 민중운동가 조안나 까리노

인권상 특별상 수상단체

인니 디알리타 합창단 선정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필리핀 인권활동가 조안나 까리노(여·69·Joanna K. Carino)씨가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디알리타 합창단(Dialiat Choir)은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5·18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는 15일 5·18기념재단에서 광주인권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조안나 까리노(Joanna K. Carino)씨를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디알리타 합창단(Dialiat Choir)을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안나 까리노씨는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 정부 시절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투쟁의 길로 뛰어 들었다. 1984년 ‘자결권과 조상



광주인권상 수상자 조안나 까리노.

의 땅 수호를 위한 코딜라라 민중연합(CPA)을 공동 설립하고, 2010년 ‘자결권과 해방을 위한 국제 원주민 운동’ 창립을 이끌었다. 2016년 ‘자결권을 위한 원주민 및 모로족 국민연대’(SANDUGO) 출범에 앞장 선 뒤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2월 조안나 까리

노씨 등 반정부 인사 675명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법무부에 이들의 처벌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디알리타 합창단은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 여성과 희생자 가족이 2011년에 결성한 단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치유 메시지를 건네고 비극적인 과거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광주인권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5만 달러,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1만 달러가 수여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변호사 함께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큰 호응

광주경찰 5개 경찰서 확대 운영

광주경찰이 변호사와 함께 운영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은 서부경찰서 한국에서민 운영하던 상담센터를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민·형사적 법률 지식을 갖춘 배대당 수사관과 변호사가 공동으로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을 상담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현 서부경찰서 1곳에서 광주지역 5개 경찰서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관련 MOU를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55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담 수사관 1명, 자문변호사 24명이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민원 발생시 전담 수사관이 1차 상담 후 형사사건은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의 경우 수사민원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 3월까지 총 7931건을 상담했다.

변호사 상담시간은 각 경찰서별 제각각이어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광산경찰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부경찰과 북부경찰은 1일 2시간씩 주 3일간, 동부경찰과 남부경찰은 1일 2시간씩 주 2일간 변호사 상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16번째...장성소방서 개청

소방인력 108명·장비 20대 배치

전남 도내 16번째 소방서인 장성소방서가 15일 개청했다.

장성을 유당리에 위치한 장성소방서에는 소방공무원 108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대를 배치했다.

119안전센터 2곳과 119구조대 1개 팀, 지역대 1개도 새로 편성됐다.

그동안 장성지역은 담양소방서 관할로 각종 재난 발생 신고 시 현장 즉각 대응이 다소 지연됐다. 또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방 사각지대에 대한 지역민 불평을 새 소방서 개청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변수남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충원을 통해 도민 안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리시아산 Siberian Chaga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결건조 농축분말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